

“밀리면 끝장” K리그1 순위싸움 배수진

팀간 두 차례 맞대결 22R 종료... 2주간 휴식기 4위 제주Utd, 1위 울산에 2패... 2위 전북엔 2승 상하위 스플릿 결정앞뒤 팀마다 전열 정비나서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은 2022 E-1챔피언십(동아시아컵) 관계로 2주간 휴식기를 끝내면 상하위 스플릿으로 나눠지기 전 마지막 한 차례씩 대결을 통해 우열이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K리그1 선두는 14승 5무 3패 승점 47을 기록하고 있는 울산 현대이다. 그 뒤를 전북현대가 12승 6무 4패(승점 42)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어 포항스틸러스(승점 37)와 제주유나이티드(34), 인천유나이티드(33) 순으로 순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성남FC는 22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2승 밖에 올리지 못하며 강등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명가’ 수원삼성과 김천 상무도 벌여놓은 승점이 빈약해 자칫 강등권 싸움으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지난 16일 22라운드 종료로 인해 12개팀 모두 두 차례씩 맞붙었다. 12개팀 중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한 팀은 없었다. ‘도장깨기’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1위 울산은

인천과 2무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했다. 나머지 모든 팀은 최소 한 차례씩 꺾였다. 울산에게 패배를 안긴 팀은 전북과 울산, 수원삼성이었다.

2위 전북은 제주와 대구에게 승리하지 못했다. 특히 제주에게는 모두 0-2로 완패하면서 유일하게 승점 1도 얻지 못했다.

포항은 1, 2위인 울산 및 전북과 1승 1패씩을 기록하며 양강과 맞서고 있다. 다만 서울과 김천에 1무 1패로 밀리며 3위에 만족해야 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북과 울산 양강을 위협할 팀으로 평가됐던 제주는 홈 개막전에서 포항에게 일격을 당하며 초반 고전했다. 하지만 서서히 상승세를 타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는 울산에게 한 차례도 이겨보지 못했고, 중하위권에 있는 강원, 대구, 김천 등에게 발목이 잡히며 선두권 경쟁 언저리만 맴돌고 있다.

과거 ‘잔류형’이었던 인천은 예전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순위권 경쟁에서 활약하고 있다. 상위권팀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으면서 상하위를 구분하는 자리를 점하고 있다.

이제 각 팀별로 한 차례씩 맞붙을 기회가 남았다. 설욕이나, 연승이나 결과에 따라 상하위 스플릿이 우선 결정되고, 이후 최종라운드를 통해 1등과 꼴찌가 판가름나게 된다. 그 첫 판은 이번 달 마지막 주말과 휴일(7월 30, 31일) 시작된다. 빼앗으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팀별로 배수진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스타전 MVP 홀런 한방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MLB 올스타전 4회초 아메리칸리그 공격에서 장칼로 스탠턴(뉴욕 양키스)이 토니 곤솔린(다저스)을 상대로 좌월 투런포를 터뜨리고 있다. 스탠턴은 이 홈런으로 생애 첫 올스타전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다.

육상 이상혁·수영 황선우 특별관리

대한체육회 별도 훈련지원 “기초종목 불모지 한국서 세계적 선수로 발돋움해”

기초 종목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육상 남자 높이뛰기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과 수영 자유형의 황선우(19·강원도청)가 대한체육회의 특별 관리를 받는다.

이상혁은 19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한국 육상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이라는 이적표를 세웠다.

이보다 앞서 황선우는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롱코스(50m) 세계선수권대회 경쟁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메달을 수확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상혁(왼쪽)이 금메달리스트 루타스 예사 바시(가운데·카타르), 동메달리스트 안드리 프로츠크(우측)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과 대한수영연맹이 종목의 대표 얼굴이자 특급스타인 이상혁과 황선우를 우선 관리한다.

여기에 대한체육회가 더 철저한 훈련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예산을 전폭 지원한다. 체육회는 지난해 도쿄올림픽을 거쳐 세계와 맞서 싸울 만한 한국의 간판으로 성장한 두 선수를 2024 파리올림픽 ‘스페셜 케어’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후원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육상, 수영 종목에 일괄 지원하던 훈련비와 별도로 이상혁, 황선우에게만 사용하도록 용처를 명확하게 정한 지원비를 제공한다. 또 이상혁과 황선우가 훈련 효과를 극대화해 실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배정된 국외 전지훈련비 외에도 국외 체재비의 일부를 체육회가 부담하는 특별 후원을 했다.

스페인 FC바르셀로나 레반도프스키 영입 확정

스페인 프로축구 ‘거함’ FC바르셀로나가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4) 영입을 확정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20일(한국시간)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던 레반도프스키와 4년 계약을 맺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바르셀로나에 따르면 구단은 뮌헨에 이적료로 선금 4500만 유로와 옵션 500만 유로(합계 약 667억 7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바르셀로나와 레반도프스키의 계약에 무려 5억 유로(약 6683억 2000만원)에 달하는 바이아웃(이적 허용 최소 이적료) 조항이 들어갔다.

차후 레반도프스키를 데려가려는 구단은 5억 유로 이상을 바르셀로나에 제시해야 바르셀로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레반도프스키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골잡이 중 하나로 꼽힌다. 2010년부터 분데스리가에서 도르트문트, 뮌헨 소속으로 12시즌을 소화하면서 384경기 312골을 기록했다.

김호 서귀포시청 육상 감독 공로패

우수선수(팀) 육성 부문

김호 서귀포시청 육상 감독이 대한체육회 창립 102주년 체육유공자 전문체육 진흥부문 중 우수선수(팀) 육성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20일 회장실에서 김호 감독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을 가졌다. >> 사진

이날 공로패 전달은 지난 12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창립 102주년 기념식과 함께 시상식이 개최됐는데 김 감독이 육상 참석치 못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김호 감독은 제주출신으로 초·중·고·실업팀 선수 생활을 제주에서 했으며, 1999년 제주시청 육상 플레잉코치를 통해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부터 서귀포시청 감독직을 맡았으며, 지도자로 전국



체육대회에서 21개(금7, 은10, 동4)의 메달과 각종 전국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이바지했다. 특히 손수연, 이수봉, 이수정 등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해 제주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 김호 감독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운영 및 매년 새해 육상전국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국로드레이스 및 제주학생로드레이스대회를 운영하는 등 전문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뉴스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의원 10: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40 필도합성 스페셜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불만인 아침 M&W 1부 8:10 해 불만인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차 내 인생(재) 10:00 인강뉴스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황금시간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재) 9:30 930 MBC 뉴스 9:55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의원 10:45 기분 좋은 날 11:15 프린세스 바리 11:30 반짝이는 프라체널3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ын아침 9:55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의원 10:45 열린TV 시청자 세상 11:45 SBS 12 뉴스	8:00 당동당 유치원 9:30 어떻게 만들까 12:10 30분 클래식 13:50 명의 14:45 임마를 찾자마 16:25 한글공서 이야기 17:45 그린조각 구조대 18:45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19:00 몬터코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30 방과 후 초능력 15:00 브랜드 이발소 3 15:15 신비파트 게스트볼츠 퀴드마사 15:45 다이노 파워즈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3:00 지분주의 학교(재) 14:40 풀원 영화가 좋다(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캐치 뉴디(재)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누가 잘하나 17:00 뽀족뽀족 포크가족 17:15 나니 뭐하니? 17:30 동전 예능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닥터로이(재) 13: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3:50 2시 뉴스 외전 15:00 MBC스포츠 2022 MBC배 대학농구 결승전 16:55 5 MBC 뉴스 17:10 가요메스트	12:40 왜 오수재인가(재) 14:00 전국 TOP10 가요쇼(재) 15:00 최강 1교시 16: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17:00 SBS 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아더드 사무스 2	7:00 KCTV 뉴스 8:30 남방의 고향리 9:30 콘테스트M2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남방의 고향리 13:10 콘테스트M2 14:00 할림레퍼, 이여도사나 15:20 민오 어벤저스 16:10 콘테스트M2 17:10 실·휴 18:00 제주 ING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오라차차 내 인생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주문을 잊은 읍성점 2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황금시간 20:30 홍길동전 21:50 정글의 연인 23:00 연동 라이브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생방송 연금보관 720+ 19:10 비밀의 집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명패한 주 22:00 심야괴담회 23:20 도포저리 휘날리며 스페셜	18:20 집속 무비월드 스페셜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판타스틱 패밀리 DNA 싱어 22: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7:00 김탁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창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종합뉴스 14:05 송정미의 속삭임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소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21일
<p> 36년 내 주장대로 행하면 다툼이 생긴다. 48년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동료나 상사를 칭찬하라. 먹을 것이 생긴다. 60년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면 좋다. 72년 금전이 새어나가니 지갑 단속이 필요하고 호기심을 잠재워라. 84년 정직함이 인정받으니 뒷사람의 충고·조언의 경성이 나를 발전시킨다.</p>
<p> 37년 막힌 일이 서서히 풀려가니 조금씩이라도 느긋한 여유가 나를 돕는다. 49년 자기위신을 명쾌하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용기라 한다. 61년 자녀의 문제로 정신적 충격이 있으니 자녀 관리 철저. 73년 동료의 협조로 일이 해결되니 일사적 현상. 85년 새로운 계획 또는 직업을 갈망하고 실천하려고 한다.</p>
<p> 38년 변동, 변화가 필요하다.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니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다. 50년 음식이나 요리일이 점차 호전. 62년 매매 문서운은 좋으나 담보는 신중히 고려. 74년 부락이 들어오면 내 힘이 약하니 부탁을 못들어준다. 정중히 능력. 86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밀어붙이는 의지가 필요.</p>
<p> 39년 건강관리는 꾸준히, 갑작스런 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은 금물. 51년 의견차이로 큰소리가 들리고 마음만 아프다. 63년 과욕으로 무리하면 될 일이 성사되지 못하니 계약 또는 매매시 신중을 기하라. 75년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호전되니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라. 87년 부족함을 인지하고 미래 준비로 고민한다.</p>
<p> 40년 지출이 발생할 일이 생기고 자녀에 대한 소식이 있다. 52년 직업상 변화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며 변동수가 온다. 64년 매매나 문서 계약건은 성사되나 자금력에서 어려움을 볼 수 있다. 76년 미혼자에게 희소식, 기혼자는 업무의 이동 변화가 있다. 88년 시험은 유리하나 재물지출이 따른다.</p>
<p> 41년 사사로움 감정이나 오해로 인정이나 주의. 53년 일이 호전되고 능력이 있으며 자녀와 관계된 일이 소식이 있다. 65년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가족간 불화 조짐이 보인다. 77년 부모, 시댁에 뒷사람 문제로 걱정, 안부전화를 드려라. 89년 기다리는 일이 생기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정하기가 어렵다.</p>
<p> 42년 전문업종은 분주히 바쁘고 거래처나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 54년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술 자체가 필요 하다. 66년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이 지체되고 하자가 발생하니 관리감독 철저. 78년 마음의 변화가 필요. 기혼자는 독자 또는 기쁨이 찾아온다. 90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부쟁이 기쁨.</p>
<p> 43년 문서 이동수가 생기고 이사, 또는 부동산 구입은 서남간에서 이득 있다. 55년 건강증이 오거나 말 실수를 하게 된다. 67년 의식주의 걱정을 덜고 내가 할 일이 생기고 지시할 일이 생긴다. 79년 말이 많으면 구설이 오니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라. 91년 거창한 계획 보다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p>
<p> 44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업종은 순탄하다. 56년 순리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 바쁘고 분주함은 매출이 되고 이윤이 된다. 68년 집안에서 내가 할 일이 생긴다. 귀가는 일찍 저물러라. 80년 직업을 필요하고 변화, 변동은 피하려고 함. 92년 친구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걱정은 오히려 친구를 멀어지게 한다.</p>
<p> 45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주 만나 협의하고 배려하면 더 큰 이득이 있다. 58년 수습할 일이 생기고 배려하면 더 큰 이득이 있다. 69년 내 주장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면 일이 순탄하다. 81년 금전적으로 지출이 외모에 투자된다. 93년 내가 먼저 배려하고 격려를 보내면 가정이 화목하다.</p>
<p> 46년 시장 상인에게 기쁨이 두 배 증가. 웃으면서 상사하고 배려하면 더 큰 이득이 있다. 58년 수습할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금수가 오니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70년 이동의 변화가 온다. 가정 주부는 취업하려고 동분서주 하기도 한다. 82년 마음이 여유롭지만 취업자는 분주하다. 94년 친구의 기쁜 소식을 접한다.</p>
<p> 47년 이사 변동이 생기거나 축하해 줄 일이 있다. 59년 출타할 일이 생기고 직장인은 신용을 중시해야 한다. 71년 상대방과 경쟁시 미워하는 마음보다 경쟁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라. 83년 친구나 지인의 도움으로 일거리가 생기며 바빠지고 분주하다. 95년 이성간에 다투면 힘들어지니 관용이 필요하다.</p>